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11월 수요집회는 김재홍 목사가 <사랑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12일) 청파전교인 환경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물건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각 교회별로 참석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협에서 절임배추를 판매합니다. 10Kg(3,4포기)에 20,500원입니다. 주문하신 배추는 11월 27일과 12월 4일에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단풍을 놓치면 가을을 놓치는 것이지요. 가을의 막바지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누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목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배삼순 이현순 이국노 이봉배  
 11/13 식당 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윤정 이은주 김민화 김정우 백묘현  
 오늘설거지봉사 : 김남홍 이지훈 이견식 권미숙  
 다음 주 설거지 : 서효진 정윤성 김영아 하현철  
 새 교 우 : 한세미(7여) 조연우(청)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 한 후 자기를 온전히 비워낸 논밭은 얼마나 거룩한지요. 그 텅 빈 충만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았지만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늦가을 논밭처럼 하늘의 뜻에 순명하며 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분쟁과 전쟁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이 땅을 아직 사랑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땅에 사랑과 평화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43:1 ..... 인도자
- ♣ 교 독 문 ..... 105. 감사절(1)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589(통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함께
- ♣ 성경봉독 ..... 시78:11-25, 마25:1-13 ..... 송동준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찬양대
- 말 씬 ..... 바위틈 사이의 깊은 물 ..... 정희수 감독
- 거둬 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손성현 안경아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강순배  
 광상준 최경미 김근중 정옥영 김정애 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김훈동 유경순 방민방 준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권호진  
 안정숙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정한구 왕영순  
 조문규 진정숙 한상경 김수진 정연희 민병배 문현미 강세기 이소애  
 송남필 박숙영 권채영 김범운 김보라 이재문 조병익 조정연

### 월정헌금: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권혁신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석희 조항미  
 백성래 서정순 왕수명 이광섭 김수연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하현철 최성애 김주영 홍복선 허명선 홍춘숙

### 감사헌금:

문금석 정복순 광해자 김일랑 이은옥 강순배 김인석 이선화 조순덕  
 나ومی2,3선교회 무명5

### 녹색꿈헌금:

장다운 김순자 이재문 김유경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임승동 백혜숙  
 김용길 최영혜

### 생일감사헌금:

박숙영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송임희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김미순
	임정자	최경미	임정자	이재문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신영신
	안정숙	진정숙	이봉배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정선희
	박호선	허정윤	김정애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김수진	홍춘숙
	이영란	박미영	배삼순	윤정화
	박혜경	조항미	이기분	최희정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August L. Storm 사 Johannes A. Hultman 곡

문정선 역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헤쳐 나온 폭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찬 양 ..... 588(통307).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다함께
- ♣ 봉 헌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불평을 반복하며 살기보다는 감사를 되새김질하며 사십시오. 일상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다함께 : 아멘. 가지지 못한 것과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쉽게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넘치도록 받았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의 구덩이는 메우고 날마다 감사의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감사찬양제	고린도전서 / 김재흥 목사 기도 : 한상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방준 선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이증자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종락 김대근 박영신 백성래 정현숙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시간이나, 물건이나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 덕분에,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 진보란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방식에서 증기기관으로 가동되는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1913년에는 자동차 차대 하나를 만드는 데 노동자 한 사람이 12.5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1914년에는 1.5시간만 일하면 되었다. 1970년에는 1메가비트의 전산처리 능력을 만드는 비용이 2만 달러였지만, 2001년에는 2센트였다.

생산성이 이렇듯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화된 국가들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예전과 비슷한 양을 생산하면서 일을 훨씬 적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을 비슷하게 많이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냐? 줄리엣 쇼어가 <과로하는 미국인>에서 설명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은, 경제학자·기업임원·노조 간부들까지도 후자를 선택했다.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끝없이 확장되는 경제의 미친 듯한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쪽으로 말이다. 동일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유럽은 첫 번째 선택지 쪽으로 기울었다. 사회적·개인적 건강과 후생을 고도소비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경로로 가게 된 데는 몇 가지 역사적·문화적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정부가 기업보다는 사회 혹은 민중 지향적이었다. 유럽의 노조와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기업의 이해관계보다 공공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졌다. 전쟁 경험과 더 사회 지향적인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

유럽에 사는 친구를 방문해본 적이 있다면, 그들이 미국인보다 더 작은 집, 더 작은 냉장고, 더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을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미국인보다 훨씬 많이 이용한다. ...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생태 발자국이 더 작고 삶의 질은 더 높다.

더 작은 집에 살고, 더 작은 차를 몰고, 물건들을 더 적게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슬퍼하는가? 국가행복도 자료를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다. 소비 중심적인 경향이 덜한 나라에서는 더 크고 새로운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결코 '모든 것인 동시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유럽 사람들은

큰 집에서 온갖 물건들에 둘러싸인 채 혼자 몇 시간 동안 TV를 보기보다는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친구나 이웃과 시간을 보낸다. ...

나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저 이야기나 하려고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화된 나라 사람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 직장에서 지쳐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TV 앞에 널브러진다. TV는 우리에게 쇼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는 광고를 쏟아낸다. 그러면 우리는 쇼핑을 한다. 그러고는 돈을 지불하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다시 직장에서 지치도록 일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괴물 같은 집, 커다란 차, 점점 부실해져가는 육체적·정신적·환경적 건강, 그리고 많은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

- 애니 레너드, 「물건 이야기」 중에서

### < 청파 전교인 환경 세미나 >

‘물건 이야기’ 라는 주제로 환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물건 이야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그 책을 교재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책은, 먼티셔츠, 알루미늄캔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어 버려지는지..

또, 이러한 물건들이 지구촌 가난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작가 애니 레너드는 20년 이상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하루에 알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12일(토) 10시-1시까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